"공포로 마비된 세상 단결시키는 건 음악"



발렌티나 리시차.

려 3시간에 걸친 리사이틀로 주목을 받았 다. 정규 프로그램이 끝난 후 앙코르를 30분 넘게 받아 관객들에게 커다란 만족

"청중들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저 도 기꺼이 연주할 수 있죠. 앙코르곡을 미 리 계획하진 않습니다. 관객들이 원한다 고 느끼는 곡들을 즉석에서 연주하죠. 부 드러운 곡일 수도 있고, 꿈꾸는 듯한 곡일 수도 있고, 때론 격렬하고 신나는 곡들일 수도 있겠죠."

노프, 쇼팽, 리스트, 라벨 등을 선보였다. 이번에는 오로지 베토벤 피아노소나타만 으로 프로그램을 꾸몄다. 17번 '템페스 트', 23번 '열정', 29번 '함머클라비어'

/오푸스 제공

"함머클라비어는 다른 규모가 큰 소나 타에 견줘서도 배는 길어요. 교향곡으로 비교하자면, 베토벤 9번 '합창'과 같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머클라비어 만 연주하는 것도 피아니스트에게는 큰 도전인데,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열 지금까지 내한 공연에서 그는 라흐마니 정'과 서정적인 '템페스트'까지 연주해 다."

리시차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를 녹음 중이기도 하다. 현재 26, 28, 31, 32 번을 제외한 나머지 녹음은 마친 상태다. 녹음하기 전 영향을 받은 연주자는 있을 까? 그가 좋아하는 베토벤 연주자는 누구

"베토벤 소나타를 전곡 연주한 사람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보다 더 적어요. 그중에 빌헬름 박하우스(1884~ 1969) 연주를 좋아합니다. 초기에 진행 한 모노 앨범을 특히 좋아하죠. 아르투르 슈나벨(1882~1951)은 더더욱 좋아합니 다. 그는 베토벤 해석의 권위자였죠. 당시 녹음 기술이 부족해 음질은 현대 녹음과 비교해 떨어지지만 말이죠. 깨끗한 음질 을 듣는데 익숙한 현대 음악 팬들은 감상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리시차는 미국에 거처를 두고 있지만, 연주와 녹음을 위해 주로 유럽에서 지낸 다. 최근 수년간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서 살았으며 현재는 녹음 작업 때문에 러 시아 모스크바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평 상시 8~12시간 정도 연습한다고 한다.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 해야 해요. 좋은 연주자가 되려면 우선 작곡가들이 남긴 악보와 원고를 철저히 연구해서 연주의 실마리를 찾아야 해요. 그러고 나서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에 걸친 연습을 거친 후 무대에 올라야 하죠. 무대에선 걱정과 공포 같은 삶의 부스러기를 잠시 접어둔 채 곡에 집중해 야 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감정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죠. 쉽지 않은 일이죠. 하 지만 무척이나 보람찬 일이기도 합니

심은경, 日 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

'블루 아워' 올 상반기 국내 개봉

배우 심은경(사진)이 일본 영화 '블루 아워'로 일본 다카사키영화제 최우수 여 우주연상을 받았다.

영화 수입사 오드는 영화 '블루 아워 의 주연 배우 심은경과 카호가 지난 22일 일본 군마현에서 열린 지역영화제인 제 34회 다카사키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주 연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블루아워'는 광고디렉터로 일하는 스 나다가 할머니 병문안을 위해 친구 키요 우라와 고향으로 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 화로 심은경이 키요우라를, 카호가 스나 다를 연기했다.

심은경은 "키요우라는 스스로 아이디 어를 내가며 감독님과 함께 만들어 낸 캐 릭터라 매우 애착이 갔다"며 "카호와 함



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 쁘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심은경은 앞서 지난 6일 열린 제43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신문기 자'로한국 여배우 최초로 최우수 여우주 연상을 받았다. '블루 아워'는 올 상반기 국내 개봉한다. /연합뉴스

"인간병기들의 아픔 담았어요"

최진혁, OCN 새 주말극 '루갈' 제작발표회

"액션이 많아 특히나 남성들이 좋아하 지 않을까 합니다."

배우 최진혁(34)은 23일 코로나19 차 단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제작 발표회에서 OCN 새 주말극 '루갈'을 이 처럼 설명했다.

'루갈'은 한자'淚竭', '눈물이 마르 다'는 뜻으로 극 중 생명공학 기술로 특 별한 능력을 얻은 인간병기들이 모인 특 수조직의 이름이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 로 한 SF 액션극으로 루갈과 테러집단 '아르고스'의 대결을 그린다.

최진혁은 "아픔을 겪고 인간병기로 다 시 태어난 인물들의 성장과 아픔이 있고, 블랙코미디 같은 요소도 있고, 인간다움 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맡은 전직 형사 강기범에 대해 "정의로움과 복수심이 매력인 것 같 다"며 "아르고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 오르고 루갈팀과 합류하며 이야기가 시작 된다. 각각 사건들이 강기범 힘의 원동력 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웹툰에는 강기범이라는 인물이 명확하지 않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며 "위트도 있고 껄렁껄렁하면서 인간적 인 면과 아픔,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 는 사람이면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 을까 싶었다"라고 원작과 드라마의 캐릭 터 차이를 설명했다.



배우 최진혁.

/OCN 제공

대한민국최대 테러집단 아르고스의 실 세이자 절대 악 황득구 역을 맡은 배우 박 성웅(47)은 "어떻게 다르게, 여태까지 기존에 나온 악당보다 더 세고 악하게 나 올 수 있을지가 숙제였다"며 "그냥 제정 신이 아니면 되더라. 배우들은 준비해가 도 현장 분위기나 몸 상태에 따라 좌지우 지되는데 황득구는 현장에서 120%가 나 온것같다"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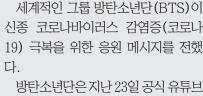
연출을 맡은 강철우 감독은 "웹툰의 장르 인 SF를 어느 만큼 표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진짜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 기 위해 충실히 연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 다"며 "새로운 그림, 신선한 사운드, 다른 드라마와 차별화되는 엄청난 컴퓨터그래 픽(CG)과 액션 장면들이 시청자분들께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 예고했다.

오는 28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

/연합뉴스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BTS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 다음 응원 주자로 손흥민 지목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

속에도 22일 예술의전당에서 리사이틀을

강행했다. 항공편 취소와 투어 일정 변경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한국행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무명이었

고,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팬

들은 열성적으로 응원해줬죠. 팬들을 실

망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저의 음

악 세계로 초대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제가

리시차는 화려한 기술과 넘치는 힘, 빠

른 속도로 몰아치는 연주로 유명하다. 열

정도 넘쳐 2013년과 2017년 내한 때 무

느끼는 강력한 의무감 중 하나입니다."

을 고수한 것이다.

계정과 '러브마이셀프' 캠페인 트위터 계정 등지에 '방탄소년단 코로나19 국 민 응원 메시지'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20일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장 교들이 국방부 SNS에 올린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 영상에서 "방탄소년 단이 릴레이 응원 메시지 첫 번째 주인 공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 것에 응답한 것이다.

진은 "요즘 익숙했던 매일매일이 얼 무대에 서며 여러분과 한 공간에서 호 흡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 러냈다.

지민은 "우리는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만큼 아주 가까이 연결돼 있다"면 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그 연결의 힘으로 이 시 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 감사의 뜻도 전했다.



방탄소년단.

마나 큰 의미였는지 또 관객석이 텅 빈 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히 느끼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 다는 위로가 필요한 때"라며 "저희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 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 가겠다"고 말했다.

뷔는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고 기쁨

겠다"고 했고 리더 알엠 역시 "다시 찾 아올 일상을 기다리며 저희는 저희의 정국은 "불안보다는 믿음이 분노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다"고 말

> 제이홉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실 간호장교 여러분과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49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 61년생 위험한 유

혹의 손길을 조심하라. 73년생 세상에 믿을 놈

이 하나도 없다. 85년생 술로는 결코 아무것도

41년생 이미 정해진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

53년생 공돈이 생기겠다. 65년생 하늘이 무너

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77년생 일단 목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함 께 손을 모으고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 민국화이팅"을 힘차게 외쳤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들은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계에 서 새 기록과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 는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 저희 응원을 이어달라"며 다음 릴레이 응원 주자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을 지목했다. /연합뉴스

최강창민 첫 솔로 앨범 '초콜릿' 내달 6일 발매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본명 심창민 •32)이 데뷔 후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최강창민 이 첫 번째 미니앨범 '초콜릿' (Chocolate)을 다음 달 6일 발매한다고 24일 밝 혔다. 앨범과 동명 타이틀곡 '초콜릿'을 비롯해 다채로운 장르 6곡이 수록된다.

최강창민은 그동안 '헤븐스 데이' (Heaven's Day), '라이즈 애즈 원' (Rise As One), '어폴로지' (Apology), 드라마 OST 등 다수 솔로곡을 발표했 고 작사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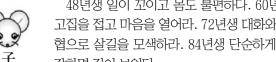
최강창민 미니 1집 '초콜릿'은 지난 23일부터 온 •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예 약 판매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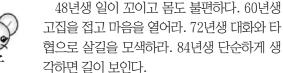
최강창민은 2004년 5인조 동방신기로 가요계에 데뷔해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다. 2010년 부터는 유노윤호와 2인조로 재편한 동방 신기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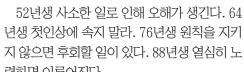
3월 25일 (음력 3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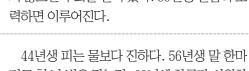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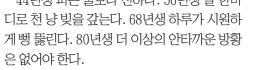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50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62년생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74년생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 서방이 번다. 86년생 생각 없이 행 동하면 후회한다.

42년생 편안한 하루를 마음껏 즐겨라. 54년

생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한다. 66년생 올바른

언행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78년생 근심거리가



51년생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 63년생 콩 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75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87년생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



(0..0)

申

은 없어야 한다.

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있다. 88년생 열심히 노



 \pm

巳

45년생 과거는 잊고 새 출발하라. 57년생 노 력에 비해 결실이 적다. 69년생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81년생 충분한 휴식이 더 유 익할 때도 있다.



午

46년생 기대만큼 만족스럽다. 58년생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70년생 행복은 가 까운 곳에 있다. 82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43년생 소인배의 이간질에 넘어가선 안 된 다. 55년생 희망과 행복이 넘쳐 난다. 67년생 지나친 자랑은 오해를 부른다. 79년생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다.



47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59년생 업 무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난다. 71년생 금전문 제로 다소 속상할 일이 있다. 83년생 겸손한 자 에게는 적이 없다.



해결되니 살맛난다.